



국제 기독교대학 학술대회 기조강연 요약문 2

그리스도 중심의 대학 교육: 그 의미와 실천

두안 리트핀

오늘날 미국의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대학교육을 외면함으로 그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대의명분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대학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의 사명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어떠한 것도 없다. 기독교대학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기관이 되기를 열망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이란 특징적으로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는 교육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는 어떠한 것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로 상정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임무는 단순히 선교를 위한 훈련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학생들이 인간 경험과 학습의 온갖 다양한 범주에 이르는 모든 지식분야를 접하게 하면서 그러한 지식들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질서와 인간들이 그 질서에 대하여 발견

하고 말하여 온 것들 중 가장 최상의 것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그리스도중심에 초점을 두는 것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해의 범주를 대속과 구원에 한정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대학교육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왜소한 기독교론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The Lord)'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분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자(The Sustainer)' 이신 동시에 모든 만물의 '목적지(The Goal)'이시고 모든 만물의 '구세주(The Redeemer)'이시다. 그리스도는 또한 모든 만물의 '심판자(The Judge)'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한 로고스이며 우주의 중심 원리이자 주체이다. 모든 생명과 빛은 그것의 근원지가 무엇 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지성은 그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분의 제국이나 왕국에서 모든 권위와 생명,

지혜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엡 1:10)”.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은 모든 이야기의 결정적인 사건이며 역사의 중심점이고 창조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이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중심에서 계시다.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이란 기독교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세계관이 깊숙한 곳 까지 배어있는 교과목과 교육과정을 특징으로 하면서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사실이나 이론, 주제들도 온전히 이해하거나 그 진가를 알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스도 중심이란 우리의 생각이 뚜렷하게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학문에서 예수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교육과정의 모든 부문에서, 모든 학문의 구석구석에 이르기 까지 생각하면서 체계적으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는 일이 우리가 유일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대학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기관이 되기를 열망해야 한다. 모든 기독교대학들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를 열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명명한 ‘우산모델(umbrella model)’을 따라 설계된 기독교대학들이 이에 해당한다.

우산모델 기독교대학은 기독교 우산이나 덮개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무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다. 기독교적 사고에 적대적인 많은 세속적인 환경들과는 달리 우산 모델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 사고에 적합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낸다. 우

산모델을 따르는 기관들 내에서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자인하는 교수들을 통해 참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이 행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교수들에게서 그러한 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그 기관 전체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학습을 찾아볼 수 있으나 그 기관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체계적 모델(The Systemic Model)’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에 대한 포부를 기대할 수 없다.

‘체계적 모델’의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적 사고를 학교 교육과정을 포함 학교 전체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체계화시키려 한다. 그들은 기독교 전통을 지지하는 어떤 특정한 지적 입장에서 모든 생각들을 연관시켜 보려고 한다. 우산모델 내에서는 일정한 구성원들에게만 진리인 것이 체계적 모델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리인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살며 사역하려고 한다.

체계적모델 기독교대학과 우산모델 기독교대학의 구별은 지지하는 신앙적 전통의 폭이 넓던지 협소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 기관에 속한 모든 교수진들이 그 기관이 지지하는 신앙 전통을 구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있다. 나는 체계적모델 기독교대학이 그리스도중심이 되기를 열망하는 것이라 본다. 체계적모델을 따라 설계된 기독교대학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중심에 초점을 맞춘 교육기관이 어떠한지를 입증해 보이기를 기대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대학교육기관이 되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계속 남아있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한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은 어떠한 것도 없

그리스도 중심이란 우리의 생각이 뚜렷하게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학문에서 예수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으려 해야 한다.

으며 그 분이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인식하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통해 성숙해가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사명을 스스로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대학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행정부서와 직원들이 그리고 교수진들이 확고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비전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삶과 사역에서 그 비전을 실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기독교대학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비전을 명확히 밝히고 남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내 경우 18년 전에 새로운 대학 총장으로 임명되어 오게 된 휘튼대학에서 나는 그 대학의 이사회와 전임 총장님들 그리고 우리학교 교수진 가운데 철학자 아더 홈즈나 역사학자 마크 놀 같은 훌륭한 학문적 귀감이 되는 분들을 통해 이러한 강력한 비전에 숙달되어 있는 캠퍼스를 영예스럽게 물려 받았다. 이것은 기독교 대학교육 기관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교육과정을 통해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제공하

는 교육에 단지 기독교 신앙을 덧입히거나 겉치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그 핵심에 두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기독교대학들은 신앙과 학문을 진정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비전을 학교 내에서의 모든 활동과 대인 관계 뿐만 아니라 업무에서도 보여주어야 하며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를 실천하고 대외적인 업무와 만남 속에서도 나타내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의 모든 생활이 포함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 비전을 실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가로막는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종교다원주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대학을 실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온전히 기독교대학을 실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악함 뿐만 아니라 ‘세상, 육체, 그리고 악한 것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중심의 대학교육이라는 주어진 사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두안 리프틴 휘튼대학교 7대 총장으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재임하였다. 그는 저서 *Conceiving the Christian College*(2004)에서 기독교대학이 지녀야 할 독특한 특징들에 대해 다루면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과 기독교 사상의 근본원리 등에 대해 논하는 가운데 보다 기독교대학이 보다 쾌적한 학문과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